

### 3월 12일 수행일기 <上>



황경환

(주)진양유조선 대표이사

내 길지 않은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부침을 거듭해 온 것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었다. 나는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잊을 수 없는 다섯 분과의 만남이 있었다. 그들은 내 삶의 스승이었으며 선지식이었다. 그 첫번째 분이 76년 세상을 하직한 아버님이시고, 두번째 분이 세수 91세로 통도사 극락암에서 열반에 드신 경봉 큰스

니 약 12년간 지속되었다. 큰스님 생존시 매월 첫 일요일은 법회가 열렸는데, 나는 10년 넘게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이 참석할 정도로 스님의 설법에 매료되었다. 항상 자주 반복하시는 말씀은 “주인공을 찾아라.”였다. 나 그대가 길을 가다 헤가 저물면 남의 집에 하루 유숙하고 가도 잘 쉬었다 간다고 주인을 찾는 데, 평생을 묵고 쉬어도 주인 한번 안 찾는다는 게 말이 되나 하시면서 대중들에게 나무라시는 투로 자주 이 말씀을 하시곤 했다.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인데 9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4시간을 놀아도 3시간이 남는데, 이 3시간 중 단 30분, 아니 단 10분이라도 나를 꿰고 다니는 이 주인공을 찾아보라는 그 말씀. 나 역시 스님이 떠나시고 난 한참 후야 그 의미에 한없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그 자비롭고 포근했던 만남도 가실 날

### 삶의 여정 속 잊을수 없는 다섯 스승

#### 불교에 대한 관심 일관토록 이끌어 주

님, 세번째 분이 96년 세상을 떠나신 한국불교연구원의 이기영 박사님, 네번째 분이 안양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이시다. 다섯번째 분이 인공기능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로 고타마 명상에 심취한 김사철 박사님 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으로부터 불교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아버님의 불교에 대한 지식은 신통과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으며 당신께서는 항상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염송하시곤 했다. 어느 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작은 배를 가지고 해상 운송업을 할 때의 일인데 바다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일을 직접 경험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세음 보살님의 확실한 가피력이었다는 것이었다.

경봉 스님과의 인연은 82년 7월 스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

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음을 예측이나 하졌던지 열반에 드시기 며칠 전 스님을 보았더니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을 찾아라”는 화두를 던져주신 것이 스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이기영 박사님은 내가 75년경 부산 동명병원 낙성식에 갔다가 처음 보았다. 당시 박사님은 동명병원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찬탄하면서 옆의 기둥 4개와 앞의 기둥 8개가 부처님 교설의 핵심인 사제 팔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날 따라 그 의미가 매우 새롭게 들렸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77년 통도사 화엄전에서 한국불교연구원 주최, 하계 수련회에 처음 참석하여 이기영 박사님께 인사를 드린 것이 지금 한국불교연구원 이사과 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게 된 계기였다. 나의 불명 ‘무진’도 그 때 수련회 회향하는 날 통도사 벽안 스님이 내려주셨다. (계속)

# 13시간 주력, ‘자성 밝히는 힘’

##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 정심사의 ‘능엄 주력’

1일 경기도 하남시 정심사(주지 원영 스님)에서는 오후 2시부터 철야 능엄기도 법회가 열렸다. 매달 첫째 토요일은 능엄주력으로 철야 정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대지비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대히대사 베푸시어 제도 하시고...”

능엄기도는 108참회로부터 시작됐다. ‘예불 대참회문’은 사방의 여러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법업을 참회하고 그 예배공덕을 모두 일체 중생에 회향하겠다는 기도문이다. 108배를 끝내자 30여 수행자들은 일제히 앉아 한목소리로 ‘대불정 능엄진주(大佛頂楞嚴神呪)’라고 부르면서 능엄주를 염송하기 시작한다.

“스타타가 토스니삼 스타타파트람 아파라지 탐 프라통기람 다라나...”

불자들이 빠르게 ‘능엄주’를 염송하기 시작했다. 도량은 ‘우-웅’하며 진언소리로 가득했다. 불자들은 마치 철물과 밀물이 오가듯 능숙하고도 일사불란하게 능엄주를 읽어 내려갔다. 초보자들은 따라 하기 힘든 것은 고사하고 않은 다리가 저러오기 시작한다. 1편 독송에 걸리는 시간은 7분 정도. 모두 108편을 독송해야 기도가 끝이 난다. 약 13시간이 소요되는 쉽지 않은 철야정진이다 보니 2시간 간격으로 20분씩 휴식한다. 철야정진은 3시경에 끝나 새벽예불로 마무리되었다.

‘부처님 정수리에서 나온 진언’이라고 하는 ‘능엄주’. 이 진언을 마음과 입으로 외우면 온갖 죄업이 소멸되고 청정한 본래의 자기로 돌아간다고 해서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일과 중에도 염송하는 진언이다. 한국 불교에서는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와 함께 가장 많이 지송되는 다라니 가운데 하나다.

성자현행(60, 서울 여의도동) 정심사신도회장은 “능엄기도는 업장을 소멸하고 온갖 장애와 잡념을 없애주어 늘 편안한 마음으로 살게 한다”며 “진언의 위신력으로 자신감 있는 삶과 수행을 병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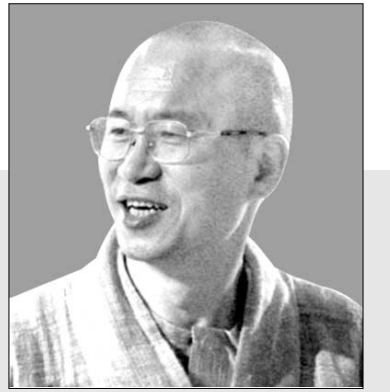
성철스님문도회 사찰에서는 반드시 수행하고 있는 능엄기도는 ‘법신비로자나 진언’(움 아비라 훔삼 스바하)을 포함한 ‘아비라 기도’로도 잘 알려져 있다. 능엄기도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라면 아비라기도는 1년에 몇차례 결제를 앞두고 4박5일씩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

예불대참회, 법신진언, 능엄주력을 함께 하는 일명 ‘아비라기도’는 성철 스님이 한국전쟁이 끝난 후 고향에 빠진 신도들에게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악업은 과거생으로부터 우리 스승이 지어온 업장의 과보”라며 일러준 기도다. ‘예불대참회’와 능엄주를 외우게 하며, 소원을 비는 불자들에게는 무릎을 꿇은채 합장하고 법신진언을 외우도록 일러주면서 비롯했다. 그때부터 성철 스님은 열반할 때까지 40여 년을 일관되게 이 법을 지켜왔는데, 이는 중국 당대(唐代)의 총립 수행법이라고 한다.

20여년전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친견한 뒤부터 능엄주력을 해온 신도회 기도부장 도림윤(58, 서울 성북동) 보살은 “생활 속에서 능엄주를 하다보면 어렵거나 힘든 장애를 쉽게 극복하고 평상심으로 살아가게 됨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은 타력(他力)에 의한 기원이나 스님들에게 의뢰하는 기도와 불공을 배격하고, “자기가 지은 악업은 자신의 노력으로 참회하고 신구(身口意) 삼업(三業)이 맑아질 때 과보(果報)가 바뀌어지며 행복이 이루어진다”며 철저한 자기 정진을 강조했다. 또한 어떤 요행이나 사행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업장을 더하는 결과라며 남과 내가 틀이 아닌 화엄법계 보현행원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라고 일러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능엄주력은 참선 수행자들로부터도 타력과 자력을 겸한 수행방편으로 애송되고 있는 것이다. (031)791-7732

김재경 기자 jikim@buddhapia.com



정심사 주지 원영 스님

### 능엄다라니 지송하면 청정 근본으로 돌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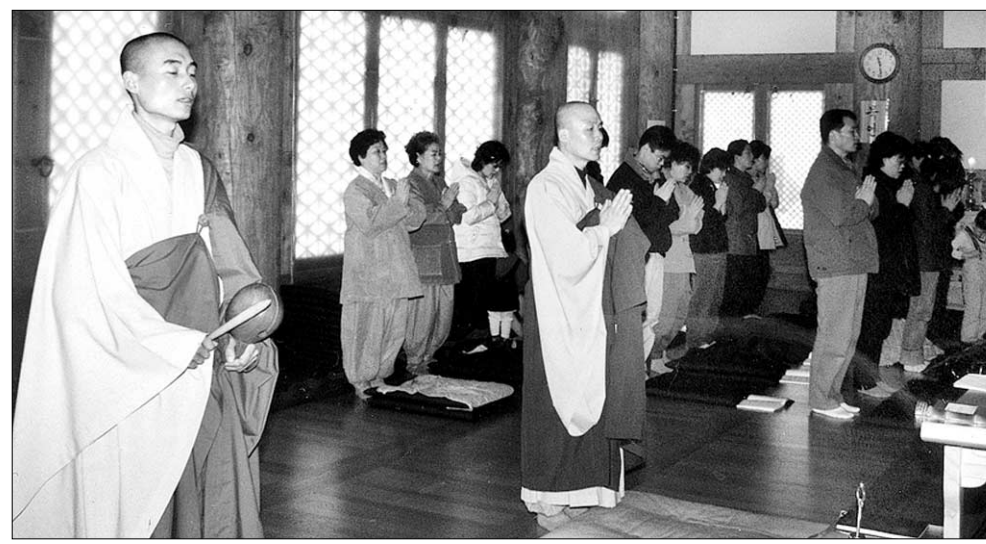
“능엄진주 기도는 마음을 끈게 모으고 수행의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심사 주지 원영 스님은 능엄주의 뜻이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선정을 닦는 데 힘을 돕는 주문’인 것처럼 마음의 온갖 장애를 이겨낼 수 있고 수행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종 사찰에서는 전통적인 수행법으로 능엄주 독송을 해왔다고 말했다.

원영 스님은 능엄경의 정수를 담은 능엄진주 기도는 아비라기도와 함께 종합수행도량인 총립의 중요한 기도법이 있다고 밝혔다. “427구로 이루어진 능엄다라니를 일념으로 지송하면 모든 마장을 물리치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모든 소원을 이루고 마침내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다”고 능엄경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능엄주를 독송하면 온갖 죄업이 남김없이 사라져 청정한 본래 근본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원영 스님은 성철 큰스님께서 미망에 허덕이는 우리 불자들에게 이 능엄주를 매일의 일과로써 수지독송하도록 일러 주셨다며, 큰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늘 능엄주를 진심으로 독송하여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진언통해 자신 있는 삶, 수행 병행 지성으로 외우면 업장소멸, 평상심 되찾아”



하남정심사대중들은 능엄주 염송을 통해 업장을 소멸시키고 장애를 극복하면서 수행력을 얻고 있다.

### 수행 캘린더

■수능염경 강좌=동국역경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씩 동국대 명진관 204호에서 역경원 현성수 상임 증의위원의 강의로 수능염경 강좌를 개설한다. 교재는 감산 스님의 <수능염경소>. 무료. (02)2260-3893

■좌선 및 금강경 독송=김해 한 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매달

셋째주 월·화·수요일 오후 5~7시 좌선 정진 및 ‘뫄뫄이 금강경 독송’을 한다. (055)342-6639

■선도회 참선법회=선도회는 7개 지부에서 정기 참선법회를 연다. 서울 목동법회(첫째 셋째 일 오전 7시30분, 02-658-6090), 정릉법회(매주 일 오후 2시, 02-913-3746), 신촌법회(매주 화 오전 7시, 02-705-8453), 인천법회(매주 월 오후 7시, 011-741-0132), 대전법회(매주 목 오후 7시

30분, 042-868-5232), 광주법회(매주 토 오후 3시, 011-619-1346), 성남법회(매주 수 오후 3시 30분, 매주 일 오전 7시, 031-711-8112)

■신앙체험 수련회=단양 구인사는 3월 22-23일 제1회 연리회 및 학생회 지도교사연합회 신앙체험 수련회를 연다. (043)423-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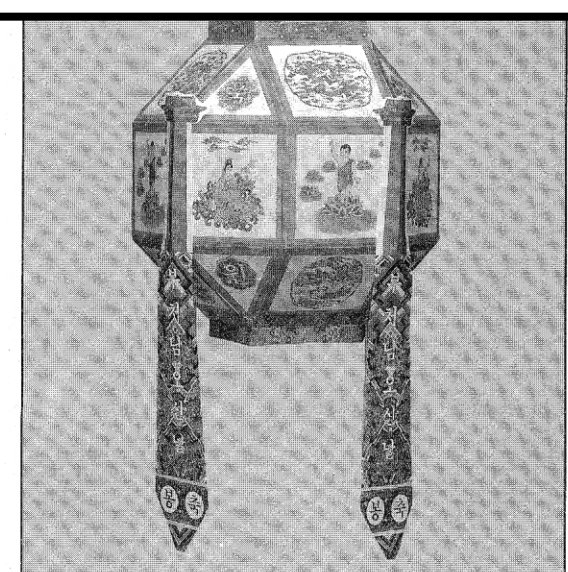
■고연가 위빠사나 10일 명상=‘한국 위빠사나 10일 코스 준비 위원회’(http://cafe.daum.net/

dhammakorea)는 4월16일 오후 4시~27일 오전 8시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고연가 위빠사나 10일 명상 코스’를 연다. 대만의 조지 사오(George Hsiao) 법사가 진행한다. 묵언 정진이 기본이며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개인 면담시간, 오후 9시부터 30분간 질문 시간. (011)9159-8203

■선기공 지도자 과정=세계선무도협회(www.golgulsa.com)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선기공 지도자 과

정 원생을 모집한다. 2년 수학후 수료증과 세계선무도협회 지도자 자격증이 수여된다. 선무도협회는 20개 국내지원 및 4개 해외지원, 8개 대학 교양과목의 수강생도 모집한다. (054)744-1689

■위빠사나 수행=동산 불교청년회는 3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정원 호두마을 지도법사를 초청, 위빠사나 수행을 한다. (02)732-1206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맛있는 등」이 3분내에 완성.
- ★ 야외장염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풍족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해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 4P 현우기획
- 전화 : 02)467-1513 핸드폰 : (016)552-9360

# 봉은승복사 할인매장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부처님께 시봉드는 마음가짐으로 중사해 온 저희 봉은승복사가 올해로 개장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의 어려운 제방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전제품을 **할인(30%)**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직접 내방하시어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 보시고 좋은 고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안내	가격안내
	◆ 모직혼방
	1. 두루막 130,000원 (110,000원)
	2. 장삼 150,000원 (150,000원)
	3. 동방바지 180,000원 (140,000원)
	4. 적삼바지 130,000원 (100,000원)
	5. 개량복 [특별인금액] (여) 80,000원 (남) 90,000원
	6. 조각면(조끼, 바지) 50,000원
	7. 반가사 50,000원
	8. 대가사 80,000원
	◆ 천연염색
	1. 티셔츠 20,000원
	2. 바지 25,000원

봉은승복사

전 화 : 053)421-5451 / 053)424-5462

휴대폰 : 011-821-54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72-18

남문사거리 • 국민은행 • 보현사 • 반월당거리

봉은승복사 대구은행